



## 수능, 이게 최선인가?



수요일 저녁 갑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층간소음주의 안내였는데 특히 내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수능)이니 수험생들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것이었다. 마침 같은 아파트 라인에 딸의 친구 언니가 고3 수험생이란 생각이 나서 아이 엄마에게 연락을 해보았다. 내일 수능인데 수험생은 어찌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숨 자고 일어나서 저녁 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했다. 하긴... 내일이 시험인데 전날 불안에 떨며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보다는 오히려 잘 먹고 잘 자고 편히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익히 들어 대중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고3 수험생은 마치 또 다른 클래스처럼 대우받는다. 고3이라는 프리패스를 손에 쥐면 어떤 행동을 해도 용서가 되며 "고3이니까... 수능이 코앞이니까..."와 같은 이유로 온갖 진상을 부려도 온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해 주고 맞춰줘야만 한다. 고3 수험생이 있는 집은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뿐 아니라 온 가족이 철저히 건강관리를 하며 몸을 사리고 마치 이날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비장해진다.

그리고 대망의 수능 날이 되면 온 나라가 초비상 사태가 된다. 수험생의 시험장 정시 도착을 위해 교통 트래픽 최소화로 초중고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교를 하고 경찰차, 소방차까지 동원되어 수험생들을 실어 나른다. 영어 듣기 평가가 시행되는 시간에는 비행기 이착륙도 연기되고 시험장 인근을

지나는 철도에서는 열차도 달리지 못한다. 남의 집 자식 대학 입시 시험 본다는데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는 이 시험이 일 년에 단 한번 바로 단판 승부이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보겠다고 수능 등급제, 특별 전형, 수시 전형 등 다양한 제도를 들여다봤지만 어찌 되었든 일 년에 딱 한번 치러지는 시험이고 과장 좀 보태서 이 시험을 위해 지난 12년을 달려왔으니 난리부르스를 떨 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미국도 대학입시를 위한 SAT, ACT 등의 시험이 있다. 이 시험의 출제와 관리는 국가기관이 아닌 칼리지보드라는 비영리 사설기관이 하고 규정에 정해진 횟수 내에서 비용만 지불하면 몇 번이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말아먹었다면 다음에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니 1년에 딱 한번 정해진 날에 응시하는 수능에 비해 심적인 부담도 훨씬 덜하다. 그렇다 보니 이 시험을 본다고 누구 하나 딱히 신경 쓰는 경우도 없다. 오직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 말고는 아무도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심지어 내가 이 시험을 보고 있을 때 교실 밖 잔디에서 정원사가 요란하게 수목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콧방귀도 끼지 않았고 그 러려니 했다.

미국 또한 개천에서 용 나는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미국 역시 고학력, 고소득 부모를 가진 수험생들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 사

교육, 입시 컨설팅, 입시 비리와 같은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매년 수능 시즌이 되면 드는 생각이지만 대입 시험 제도만큼은 미국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에도 칼럼에서 거론한 적이 있지만 일 년에 단 한 차례, 하루 만에 치러지는 수능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능은 최악의 시험이자 입시 제도이며 우리나라 10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등공신이 분명하다. 1년에 딱 한 번만 정해진 날 시험을 봐야 하고 이 시험이 대학입시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부담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슨 오징어게임도 아니고 까짓 시험 하나에 인생이 걸려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할 것인가? 수능 결과가 안 좋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게 된다 한들 그게 내 인생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도 아닌데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어대니 멘탈을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안 가 우리 아이들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온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pay when close escrow)

(\* for regular commission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 시니어 스페셜 \*\*\***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